

# Linsu Kim, Imitation to Innovation\*

이진주\*\*

“반도체, 정경화, 박찬호, 박세리 등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목록에서 우리나라 지식계를 대표할 수 있는 목직한 책 한권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위의 글은 우리나라 어느 대학신문의 칼럼에서, 오늘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지적 생산능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지적한 내용이다. 국내 학자의 저작이 미국의 우수한 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은 이 책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되면서 어느 일간신문에 어록(語錄)으로 전재(轉載)된 위에 내용이 얼핏 머리속에 떠오르게 되었다. 과거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세계 여러나라의 부러움에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한강의 기적」 뒤에 숨어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 책은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세계독자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3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기술적 능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근면한 한국인들의 노력이 어떠한지를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기술발전을 모방에서 혁신으로 가는 기술학습의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중소기업분야를 상세하게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한국의 기술학습의 결론적 요약과 다른나라에 대한 정책적, 경영적 차원의 의미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서론에서 한국이 60년대와 70년대의 단순모방이나 역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의 모방단계를 거쳐 80년대와 90년대에 창조적 모방과 혁신으로 이행되어 가는 동인(動因)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전쟁으로 통해 경직된 계급사회가 유연성 있는 계급없는 사회로 변하게 된 것, 둘째,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추진역할, 셋째, 이러한 산업화과정에서의 엔진구실을 한 재벌의 역할, 넷째, 한국인의 근면성과 교육열, 다섯째, 한국의 수출지향적 산업화 정책 등이 성공적 모방과 혁신이라는 기술학습의 추진력(driving force)였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자는 제1부에서 기술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학습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 근면한 한국인들의 기술학습에 바탕이 된 교육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분석을 위해 종합적 분석

\* by Linsu Kim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분석들의 기본구성은 시장기구의 관점, 기술흐름의 관점, 산업기술발전의 동태적 관점으로 엮여져 있다. 먼저 기술수요의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대기업, 수출촉진, 중화학공업진흥, 산업평화, 반독점 및 공정거래질서,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중소기업지원, 지적재산권 등의 세부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음 기술공급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기술확산, 자체적 연구개발, 과학기계화의 세부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이어 근면한 한국인들의 기술학습의 바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교육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해외유학의 영향 등의 교육적 측면의 검토의견이 요약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유교의 영향으로 인한 교육열, 가족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화의 강조, 현세에 대한 강조와 자기개발의 추구, 규율의 강조 등이 중요한 기여를 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노사분규와 산업평화 등이 1980년대 후반에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영향이 근로자들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배경설명에 이어 제2부에서는 4개 산업분야에서 기술학습의 모방과 혁신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론적으로 확고한 5가지의 분석들에 의해 파헤치고 있다. 첫째 분석들은 기업에서의 동태적 기술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전의 틀, 제도의 틀, 기술발전의 궤적에 대한 틀이며, 세 번째 분석들은 기술학습의 원천에 대한 분석틀이고, 네번째 분석들은 기술학습의 통태적 분석틀이며, 다섯번째 틀은 기술격차를 좁혀 나갈때 기술이전의 진화에 대한 분석틀로 되어 있다. 저자는 위의 5가지 분석틀을 활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기술발전을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 조성과 기술학습의 관계로 조명하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자산업에서는 역 엔지니어링에서 전략적 제휴에 의한 발전과정을 TV,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등의 사례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반도체산업에서는 세계최고수준으로의 도약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통적 중소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의 모방적, 혁신적 기술개발 및 학습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3부의 결론부분에서 한국의 기술학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 지휘자로, 재원은 자산이며 부담요소로, 교육은 추진력에서 장애요소로, 수출전략은 주요 촉진제로 정리하면서 기술이전과 연구개발정책의 공과를 논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여러 요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 기술학습의 전략과 기술이전 전략등에 대해 매우 유용한 이론적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한국의 기술학습이 기술공여국의 입장과 기술수용국가의 입장에서의 의미를 각각 정리하면서, 국가차원의 정책과 기업차원의 전략에서의 교훈을 요약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와 다른 후진국에서의 정책적 함의와 권고사항이 아울러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대로 저자는 한국의 경제발전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학습이 모방에서 혁신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탄탄한 이론적 분석들과 설득력 있는 몇몇 산업분야의 사례를 통해 매우 흥미롭게 설명할 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인과관계로 수준높은 설명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은 지면의 한계로 제시되지 못한 후속연구내용, 즉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론의 분석들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에 의한 검증과 정리분석이 될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저자의 계속적인 과제로 이어져야 될 뿐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경우 모방과정에서의 기술학습과 구조적 요소들이 혁신과정에서 어떻게 패러다임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국제적 수준의 저서가 계속 이어지기를 갈망한다.